‘기생충’ 이어 2년 연속 쾌거…오스카도 거머쥘까 관심

‘미나리’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 작품
미국에 꿈 심은 한인 가정 이야기
윤여정, 각종 영화제 여우조연상

골든글로브 최우수 외국어영화상 수상 ‘미나리’

미국 양대 영화 시상식인 골든글로브에서 최우수 외국어영화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국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다.

영화는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가장 미국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국 남부 아칸소주 농장으로 이주한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던 제이컵(스티븐 연)은 비옥한 땅을 일구겠다는 꿈을 품고 아내 모니카(한예리)와 딸 앤(노엘 케이트 조), 아들 데이비드(앨런 김)를 데리고 남부 아칸소로 이주한다.

아직 어리고 심장이 좋지 않은 데이비드와 앤을 돌보기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한국에서 건너온다.

낯선 환경에서 갈등하다가도 서로에게 의지해 보듬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는 이민자로 한정하지 않더라도 가족을 둔 대부분의 이들에게 깊이 다가간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자신과 가족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영화를 쓰고 연출한 정 감독은 최근 한국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가 이렇게 호평받는 것이 놀랍고 신기하다”면서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 나라나 국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민자 이야기, 제 개인의 이야기여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인 것 같다. 극 중 가족이 겪는 갈등과 고충,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함께 헤쳐나가는 모습에 공감해 주신다”며 “열린 마음으로 배역에 임하고 표정에서 인간애가 묻어나도록 섬세하게 표현해준 배우들의 훌륭하고 깊이 있는 연기 덕”이라고 공을 돌렸다.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FPA)가 대화의 50% 이상이 영어가 아닌 경우 외국어 영화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리면서 인종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브래드 피트의 ‘플랜B’가 제작하고, 미국인 감독과 배우가 미국에서 촬영한 영화를 외국어영화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었다.

지난해 중국계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페어웰’로 같은 부분에 올랐던 중국계 미국인 감독 룰루 왕이 비슷한 처지가 된 ‘미나리’를 옹호하며 HFPA를 비판하고 나서기도 했다.

왕 감독은 “올해 ‘미나리’보다 더 미국적인 영화를 본 적이 없다. 그건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이자 미국에서 아메리칸드림을 추구하는 이야기다”라며 “오직 영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특징짓는 구식의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영화지만, 한국어 대사가 80% 이상이어서 자막을 읽어야 하는 ‘외국어’ 영화가 미국에서 전례 없는 호평과 관심을 받는 건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불러일으킨 한국 콘텐츠에 대한 열광적인 관심 덕이 크다.

또한 백인 일색으로 비판받던 할리우드가 다양성을 받아들이려 노력하는 변화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외신들은 ‘기생충’이 골든글로브 최우수외국어영화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비롯한 4관왕을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미나리’가 같은 길을 갈지 관심을 표해왔다. /연합뉴스

무한경쟁 드라마 시장 연기력 보증된 중고신인 인기

‘빈센조’ 전여빈, ‘타임즈’ 이주영 등
플랫폼 다변화로 드라마 급증 원인
제작비 고려, 연기 안정성 배우 필요

전여빈

이주영

원진아

플랫폼 다변화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드라마 시장에서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된 중고신인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최근 tvN ‘빈센조’와 OCN ‘타임즈’에서 톱스타인 송중기와 이서진에게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선보이는 전여빈과 이주영이 대표적이다.

최근 들어 중고신인들이 주연을 맡아 활약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톱배우 기근’ 시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드라마 편수의 급격한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자리를 잡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까지 등장하며 드라마를 선보이는 플랫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그 뒤에는 제한된 출연료 등 경제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공희정 드라마평론가는 “대중들에게는 신선함을 주면서도 연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는 인물을 찾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작품 수 자체가 적었던 과거에는 톱배우들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성공을 어느 정도 담보할 수 있었지만,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각본이나 화려한 연출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드라마들이 대거 나타나면서 배우의 이름만으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톱배우보다는 역할에 더 확실하게 들어맞는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를 찾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극계 혹은 독립영화 등에서 다부진 연기력을 입증받은 이들을 주연으로 활용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주영과 전여빈도 각각 2012년, 2015년부터 독립영화를 발판 삼아 꾸준하게 필모그래피를 쌓아 올리면서 영화제에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그 연기력을 입증받은 바 있다.

현재 JTBC 드라마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에서 주연을 맡은 원진아와 올해 방송 예정인 JTBC ‘로스쿨’에서 주연을 맡은 류혜영도 마찬가지다.

중고신인들이 주목받는 보다 근본적인 배경에는 제한된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다. 흥행을 위해 남자 배역에 톱배우를 캐스팅하면서 제작비를 고려해 여자 주인공으로는 중고신인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궤짝·한옥…전유성과 함께하는 낭만 카페 기행

EBS 5일까지 ‘아주 각별한 기행’

EBS 1TV는 5일까지 매일 오후 8시 35분 ‘아주 각별한 기행-전유성의 낭만 카페 기행’을 방송한다.

개그맨 전유성은 평범함을 거부한 이색적인 카페를 찾아 떠난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전유성과 특이하고 재밌게 자신만의 카페를 꾸린 이들의 만남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쾌하게 사는 법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준다.

2일에는 충북 음성의 궤짝 카페를 방문한다. 복숭아를 담던 궤짝을 떠올려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사람은 농부이자 설치 미술가 신종덕 씨다. 내 삶에서 미술을 표현하고 미술로 지역주민들과 즐거움을 나누고 싶다는 그 가족의 자유로운 삶의 철학에 귀 기울여 본다.

3일 목적지는 양평 남한강 변에 있는 빈티지 카페다. 주인장 최창완 씨가 모은 골동품은 기본 100년 이상의 세월을 견딘 물건들이다. 쓸모를 다해 버려진 물건에도 사연은 있다고 생각하는 최 씨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물건을 수집해왔다.

환갑을 넘기면서 정크아트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최창완 씨는 현재 버려진 고물들을 용접하며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

4일에는 공주 한옥 카페를 찾는다.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작은 골목길에 있는 이 한옥 찻집에는 미소가 닮은 석미경, 박인규 씨 부부가 있다. 각자의 공간에서 아내는 찻집을, 남편은 초콜릿 공방을 운영한다.

마지막 5일에는 경주 자개장 카페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옛 물건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김동일 관장은 자신의 공간을 그 시절의 작은 소품부터 가전제품, 유행했던 만화 주인공 피겨들로 채워갔다. 덕분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향수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협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협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 · 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문화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